

동·서양의 복식에 나타난 노란색의 상징적 의미 연구

이윤정 · 김경인*
독일 뮌스터대 의상직물 전공 박사과정
한성대학교 의생활학부 의상디자인 전공 부교수*

A Study on Yellow Color's Symbolic Meaning in Oriental and Occidental Costume

Yun-Jung Lee · Kyung-In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Muenster University, Germany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2003. 6. 10. 접수)

Abstract

This survey paper examin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yellow" color, the oldest color in the history of art. Also the research aims to find meanings of the color and historical development embedded in clothing and textile both in orient and in occident where different philosophy and history developed.

It is found here that the yellow symboliz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meaning in the history of costume throughout the world. The color, however, was used to symbolize mostly positive meaning in the orient whereas not in the occident. "Yellow" color in orient used to symbolize the supremacy of the emperor, excellence and authority. The meaning of "yellow" color in the occident is two fold: from the positive viewpoint it represent god, king, wisdom, wealth and holy light, and from the negative viewpoint it represent image of betrayal and distrust, image of immorality, image of death and disease and image of jealousy and hatred. The concept of "yellow" was generalized in orient by the "Eum-Yang-O-Haeng Theory", while in occident by the Christianity. And the concepts came to hold concrete meanings and thereafter the symbol of yellow appeared.

Key Words: yellow(노란색), orient(동양), occident(서양), symbolize(상징), , Christianity(기독교)
Eum-Yang-O-Haeng Theory(음양오행설)

※ 본 연구는 2002학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한 것임.

I. 서론

인간은 모든 색채로부터 독특한 분위기를 발견하고 자연의 색채에 순응한다¹⁾. 색에 대한 감정은 그 사람의 습관, 심리, 경험 등에 따라 다르며, 민족,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다. 색으로부터 얻어지는 연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경험을 얻게 하고, 그 후에 취득되는 공통적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특정한 색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생기게 되어, 그 색은 상징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색채는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문제를 넘어서 인간정신의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된다²⁾. 즉, 색채의 감정이나 연상이 개인자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역적 보편성을 획득하고, 전통과 결합되어 일반화 되면 하나의 색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는 상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³⁾. 그러므로 색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의 상징성을 가진다.

색상 중에서 노랑은 순색명도가 가장 높은 색으로, 적극적인 이미지와 함께 생명을 주는 태양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노랑은 전통적으로 풍요와 위엄을 상징하며 계급표시로도 사용되었고, 밝은 미래와 희망, 지혜를 대표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노랑은 현대에 활동성과 쾌활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광고와 포장에도 많이 이용된다. 현대패션에서도 노랑에 대한 높은 명시성때문에 아동복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봄과 여름에 많이 사용되는 젊음의 색이다⁴⁾. 그러나 이러한 현대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노란색의 이미지 및 복식에서 나타나는 상징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의상에서 표현되는 색은 단순한 색감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인간의 생활감정과 신복사상이 함축되어 상징화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사에 등장하는 색 중 가장 오래된 색인 노란색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고찰해 보며, 복식에 표현된 노란색이 다른 세계관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양과 동양에서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역사적 발전을 이루어왔는지 문헌을 통해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노란색의 일반적인 특징

지각되어진 색으로서의 색채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느낌이나 판단, 연상 등의 이미지가 함께 한다. 또한 색채가 주는 이미지는 연상, 상징과 관련되어 언어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⁵⁾.

노란색은 모든 색 중에서 가장 많은 광채를 띠는 색으로 태양과 광명을 상징한다. 또한 yellow나 gold가 모두 어근 ghel- 또는 ghol-에서 파생된 것으로 "빛나는, 반짝이는, 광택있는"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노란색은 밝고 신성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⁶⁾. 특히 황금색은 광학적 특성에 있어서 노란색과 별로 다르지 않다. 두뇌에 등록된 색의 스펙트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노랑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색이다⁷⁾. 즉, 노랑은 시인도(視認度)가 높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이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색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⁸⁾.

노랑은 운동신경을 활성화하고 근육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생성하므로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1) 최영중, 주인영 (1998). 색의 상징성과 Communication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논문집, p.579.

2) 임영방 (1986). 생활미술. 서울: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p.178.

3) 신정숙, 이상은, 정혜정 (2000). 전통 염색복에 표현된 동서양 색채의미.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1), p.75.

4) 오해순, 이경희 (2002). 현대패션에 나타난 노랑의 조형성과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6(6), p.866.

5) Ibid., p.867.

6) Bruns, M. 조정옥 역(1999). 색의 수수께끼. 서울:세종연구원, p.90.

7) 신정숙, 이상은, 정혜정, op. cit., p.94.

8) 오해순, 이경희, op. cit., p.868.

사용되는데, 즉 노랑은 기능을 자극하고 상처를 회복시키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 또한 노랑색은 실망감을 없애주며 기쁨, 즐거움, 지성, 인식 등을 자극하여 사람을 들뜨게 하고, 기억력 감퇴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프릴링의 "색의 법칙"에 따르면, 채색된 빛에 의한 생리, 심리학적인 반응의 연구에서 노랑색은 긴장과 해소를 동시에 주며 운동신경의 움직임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⁹⁾.

노랑색은 상반된 두 개의 양면적인 이미지를 지녀왔다.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이 노랑색의 상반된 논리에 대해 문화 인류학자 키쉬는 노랑색은 태양의 반짝이는 성질에 비유되므로 본래는 긍정적이었으나, 반면 모든 빛 가운데 가장 눈에 잘 띠는 색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격리시켜야 할 이단자, 죄인의 표시로 자주 선택되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¹⁰⁾.

긍정적인 의미에서 노랑색은 빛의 상징이며, 에너지의 원천을 상징하며, 생명을 키우는 태양색, 봄을 대표하는 꽃색, 영광의 이미지, 환희, 명쾌, 쾌활한 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신의 힘, 현명함, 희망, 광명, 발전을 의미한다¹¹⁾. 순수한 노랑색과 관련되어 떠오르는 또 다른 연상은 낮, 따뜻함, 밝은, 분명한, 움직이는, 자유로운, 매우 가벼운, 강한, 눈부신, 호기심, 주의 등도 떠올리게 한다¹²⁾. Favre와 November에 의하면 "노랑색은 모든 색 중에서 가장 빛이 나며, 눈부시며, 쾌활한 느낌을 주는 색상이다. 노랑색은 젊은이의 색이며,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선명함 즉 활기참을 가지며,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며, 또한 황금색은 매우 활동적인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¹³⁾.

부정적인 의미에서 노랑색은 오렌지색이나 적색과 비교해 볼 때는 경박하고 냉담한 색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색이 밝아 다른 색으로 쉽게 변할 수 있어 불안정한 색이다. 따라서 노랑색은 경박, 냉담, 질투, 미숙함, 배신, 범죄 등으로 정의되기도 하고,¹⁴⁾ 우스꽝스러운, 신경질적임, 희망, 늙음, 죽음을 상징하기도 한다¹⁵⁾. 노랑색의 부정적인 또 다른 특성은 만월의 노랑색은 질투심을 상징하고, 레몬색의 노랑은 "시고" "독성이 있는, 인공적인, 위험스러운, 병이 있는 것 같은"의 느낌을 연상케 한다¹⁶⁾. 이처럼 노랑색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양면성을 가진다.

2) 복식에 표현된 노랑색의 상징적인 의미

상징이란 단어의 어원은 희랍어 "symballein"에서 온 것으로서 그 뜻은 "함께 만나다" 또는 "추론하다"를 나타낸다. Harvey는 상징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일정한 의미나 의미들은 지니는 그림, 언어 혹은 물체라고 하였다¹⁷⁾. Fore¹⁸⁾에 따르면 상징은 어떤 물체에 대해 궁극적인 의미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Ricoeur에 의하면 상징은 하나의 의미만을 나타내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징은 해석하며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한다고 보아서, 상징 안에는 유사한 개념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상징은 끊임없는 해석과 사고를 창출시킨다고 하였다¹⁹⁾.

색은 종교나 민족, 문화에 따라 관습적으로 사용되거나 독특한 상징성을 갖는다. 다양한 문화

9) 이현주 (2000). 노랑색 이미지에 의한 복식디자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25.

10) 하용득 (1996). 한국전통과 색채심리. 서울: 명지출판사, p.146.

11) 패션 디자인 실무 (2002). 서울:라사라패션정보, p.154.

12) Braem, H. (1987). Die Macht der Farben. Muenchen:Wirtschaftsverlag Langen-Mueller, p.91.

13) Favre and November (1979). Color and Communication. Zurich, p.74.

14) 김인수 (1985). 색채가 의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5.

15) 오세은 (1989). 삼국시대 문헌상에 나타난 색채.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16) Braem, op. cit., p.92.

17) Harvey, Van A. (1964). A Handbook of Theological Terms. New York:Macmillan company, p.232.

18) Fore, W. F. (1968). Communication for churchmen. Nashville & New York:Abingdon Press, p.95.

19) 이경손 (1999). 기독교 상징에 관한 연구-문양 및 색채를 중심으로-배화논총 18, p.203.

적 배경을 지닌 집단에서 발견되는 색의 상징성은 특정한 색들에 대해 정서적으로 결합, 전환되거나 발전되었다. 이들 정서적 결합들은 차례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인 경험들로 전환되었는데, 그 중 노랑은 고귀한 색에서 경멸당하는 색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져 있다²⁰.

특히 예술의 정신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색채관에 바탕을 두고 입혀졌던 복식색상에 대한 단서는 그 당대인들의 가치관이나, 염원, 정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복식이야말로 인간의 내적 측면을 가시적으로 표출하는 매개물의 역할을 한다²¹. 따라서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정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복식색채의 상징적 의미, 그 중 노란색의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동양과 서양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양복식에서 노란색의 상징적인 의미

동양에서 색에 대한 상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동양의 중심사상인 음양오행설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음양오행설이란 우주와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을 음양과 오행의 원리에 따라 해석하고, 자연 및 인간의 제반 생활 모두가 음양오행의 이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음양오행설에서의 색채는 청, 적, 황, 백, 흑의 5가지 색상이다. 우주는 다섯으로 구분된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며, 이 분할된 시간과 공간은 고유한 다섯 가지 색채에 의해 형성되며, 다섯 색은 상호 균등함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였다²². 이를 오방색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오방색인 오색은 우주의 중심이 되는 색으로 정색(正色)이라 하여 중요

하게 사용되었으며, 그 사이색인 중간색은 간색(間色)이라 하여 부차적인 색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색인 원색을 사용한 반면, 지위가 낮은 사람은 간색인 중간색을 사용하였다²³.

여기서 오색은 방위와 사계도 나타내었다. 노란색은 중앙을 의미하며, 청색은 동쪽, 적색은 남쪽, 백색은 서쪽, 흑색은 북쪽을 의미하였다. 사계를 상징하는 색으로 청은 봄, 적은 여름, 황은 음력 6월경, 백은 가을, 흑은 겨울을 뜻하였다²⁴. 오행은 火, 水, 木, 金, 土를 말하는데, 이러한 5가지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자연은 나무가 파랑색으로, 불은 빨강색으로, 땅은 노랑색으로, 쇠는 흰색, 물은 검정색으로 나타내었다.²⁵ 중국에서 노란색을 땅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매년 중국 고비사막의 황토에서 불어오는 모래 폭풍 때문에 북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지를 노란색으로 보았다. 또한 중국 사람은 고비사막을 지구의 중심이라고도 생각하였기 때문에, 노란색과 땅과 중심을 동등하게 보았다²⁶. 따라서 동양에서 노란색은 오색의 중심색으로서, 방위로는 중앙에, 계절로는 만하에 해당되며, 오행 중에서는 토(土)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땅을 상징하였다.

또한 동양에서 노란색은 우주의 중심에 해당되므로 오색 중 가장 고귀한 색으로 인식되었다. 즉 노란색은 황제, 재상, 천자를 상징하며, 고귀한 색으로 인식되는 것이 강하였으나, 반면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는데, 노란색은 야인, 도사, 덧없음을 상징하며, 미숙한 사람이나 경험이나 사려가 얕은 유치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였다²⁷.

20) 오해순, 이경희. op. cit., p.866.

21) 이선재 (1992). 조선시대 복식에 반영된 음양오행사상에 관한 연구 -여자, 남자 복식의 색채와 문양을 중심으로-. 숙명여대아세아여성 연구 31, p.179.

22) 원미량 (1976). 청색을 통해 본 중국 개념색의 문제, 공간. No.102. 서울:공간사, p.91.

23) 금기숙 (1994). 복식에 표현된 한국 고유색에 대한 연구, 홍익논총 26, p.253.

24) 정소연 (1995). 동양의 색채개념에 의한 상징적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10.

25) 안향신 (1993). 현대 복식에 표현된 색채상징에 관한 연구-1990년대 색채 경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0.

26) Eberhard, W. (1983). *Lekikon chinesischer Symbole-Geheime Sinnbilder in Kunst und Literatur. Leben und Denken der Chibesen*. Koeln:Eugen Diederichs Verlag, p.104.

27) 김지선 (2001). 전통복식에 나타난 황색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8.

① 중국복식에서의 노란색의 사용정도와 상징적인 의미

기원전 200년인 서한시대부터 중국에서는 황색(노란색)이 御袍의 복색으로 규정되었다. 그 이유는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음양오행설에 따라, 노랑은 빛을 의미하고, 토에 속하며, 흙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온 백성을 먹고 살게 해주었다. 또한 노란색은 중앙을 지칭하여 사방의 어느 곳으로도 힘을 미칠 수 있고, 계절로도 晩夏이므로 사계절은 중화하여 德을 4 계절에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믿음을 주며, 일음인 窩에 해당되어, 색 중에서는 최고의 색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황색은 중국에서 통치권자인 천자를 상징하며 권위를 나타내는 貴色으로 다루어졌으며, 나아가 御用의 복색으로만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황포는 20세기에 이르기까지 士庶人에게는 금지되면서 동양 전체의 복색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중국의 전통 연극에서는 관객이 극중 인물의 성격을 미리 예측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색으로서 표시하기도 했는데, 황색은 황제, 상사, 고용주 등을 나타내었다²⁸⁾. 이와 같이 중국에서 노란색의 의미는 명성과 계속적인 발전을 의미하였다. 한 예로 "황룡(黃龍)"은 행운을 가져오는 표시이며, "노란 우물(황천)"은 기본적으로 지옥을 의미하나, 유황물이 끓는 지옥이 아닌 물이 범람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등 긍정적인 의미를 지녔다²⁹⁾. 황룡은 禹의 홍수 전설에 나오는 것으로 治水의 功을 말하기도 하며, 토양의 氣를 획득한 박력을 상징하기도 하였다³⁰⁾. 유교에서도 임금의 노란 곤룡포에 황룡(黃龍)을 금실로 수놓아 위엄을 상징하였다³¹⁾. 결론적으로 중국에서의 노란색은 고귀한 색, 높은 신분의 상징 등 매우 긍정적인 상징성을 가지면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한국복식에서의 노란색의 사용정도와 상징적인 의미

한국인의 색채의식은 중국의 세계관과 음양오행적 우주관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에게 의해 재창조된 유교 의식과 민속, 무속적인 면이 합해져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대종교의 천부경은 天地人 일체의 원리와 삼신일체의 사상을 담고 있다. 이것을 도형화한 것이 삼태극으로, 삼태극의 형태는 새로운 생명의 생성, 소멸의 뜻을 포함한다. 빨강, 노랑, 파랑 삼색 중에 빨강은 태양의 상징으로 陽, 파랑은 陰, 노랑은 빨강과 파랑의 중간으로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인간은 의미한다. 그 중 음양오행사상은 우리나라 복식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음양오행사상은 삼국 시대에 처음 유입된 이래 고려,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한민족의 색채체계 순위가 바뀌고 특정 색에 대한 금색(禁色) 개념도 생겨나게 하였다. 조선시대의 관복에 사용된 색도 정치적인 신분을 상징했던 색채의 상징성 기능을 활용한 예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 복식에 표현된 색채는 미신, 사대주의, 신분의 준비사상, 검약절용, 계급의식, 당파의식 등의 영향을 받았다³²⁾.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에서 황색(노란색)이 사용된 예를 시대별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에서는 왕의 복식으로 오채로서 황색을 사용하였고, 신발에도 사용하였다. 여기서 황색은 중국의 음양오행사상의 의미일 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 즉 악공의 저고리, 치마, 바지 등에도 고루 사용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관복에서 사용하지는 않았다³³⁾. 고구려 벽화에서도 많은 황색의 모습들이 발견되나 당시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³⁴⁾.

백제는 260년에 복색제도를 발표했는데, 백제

28) 신영선 (1998). 복식의 정신문화. 서울:교문사, p.93.

29) Eberhard. op. cit., p.104.

30) 정명자 (1986). 우리나라 용문양에 관한 연구. 한양여자전문대학교 논문집 9, p.263.

31) 오해순, 이경희. op. cit., p.868.

32) 이규태 (1991). 우리의 옷 이야기. 서울:기린, p.97

33) 김지선. op. cit., pp.26-28.

34) 이영주 (1999). 한국고대염색문화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8.

는 염색기술이 발달하여 충분한 색채를 낼 수 있었고, 이 당시의 황색은 자색이나 비색에 밀려 상위자의 복색이 아닌, 하급자의 복색으로 인식되었다. 신라에서는 6세기 초까지는 황색이 자색, 비색, 청색에 밀려 최하위의 색으로 관복에 사용되고 있었으나, 6세기 중반 이후 상위의 색으로 제정되었고, 태조 5년에 황색 옷에 대한 금제령이 내려졌고, 노란색과 비슷한 홍, 토홍, 황활색 등도 입지 못하였으며, 황색은 성골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서는 자황색이 최고의 복색으로 인식되었는데, 이것은 중국 당대에서 실시된 황색의 제도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³⁵⁾.

고려시대에 왕의 황색 사용은 赤黃, 紅黃, 芝黃 등의 붉은색계 황색과 淡黃, 상색 등 백색계의 황색이 나타났는데, 우왕대에 이르러 명나라에 대한 이등체강의 원칙에 따라 왕의 복색이 대홍색으로 변하고, 황색의 사용이 금지되었다³⁶⁾.

조선시대에 와서도 황색에 대해서는 고려 말의 이등체강의 원칙에 의해 황색이 중국황제의 복색이라 하여,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그러나 조선말 고종 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황제 및 황후의 색으로 황색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황색의 색명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적색화, 청색화, 백색화되는 과정을 거친 유사 황색이 남녀의 복장에 많이 사용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세종대를 전후로 하여 토황색은 물론 적색계 황색인 다황색이 조정의 관리들에게 허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⁷⁾.

조선시대 여자의 복식에서도 황색은 중국황제의 용포색이라 하여 금해졌다. 그러나 소나무의 송화색, 가을의 노란 국화색, 봉숭아나 진달래의 진한 분홍색을 사용함으로써, 금지되어 있는 황색의 정색을 피하는 효과와 동시에 간색의 부드

러움을 택하였다. 특히 송화색은 연한 황색으로 저고리 색으로 많이 쓰였다³⁸⁾. 반가의 미혼녀는 다홍색 치마와 노란색 저고리가 일반적인 복색이었다. 결혼 후에는 남색 치마 혹은 홍색 치마에 분홍색 혹은 노란색 저고리를 입기도 했다. 이 때의 황색 저고리는 명황색으로 이것은 성숙하지 않은 여아들의 복색이었으므로 황제복의 금황색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고, 혼례 전에 일상적으로 착용되었던 것 같다³⁹⁾. 노랑에 연두 삼희장저고리는 모든 것이 흙(土-黃)에서 성장(木-靑)된다는 생과 成의 원리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위로는 종묘를 섬겨 제사의 주인이 되고 아래로는 자손을 후손에게 계속시켜 조상의 대를 끊이지 않게 하는 혼례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염집에서는 시집가는 날에만 노랑저고리를 입을 수가 있었다. 이는 반가에서 입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생과 成에 바탕을 두었다⁴⁰⁾.

우리나라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와 더불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황색은 중국 황제의 색으로 정하여 귀색으로 여겨 우리나라 왕, 왕비도 입지 못한 색이었지만, 문헌상에 보면, 계급이 낮은 자들이 입고 있는 것도 발견된다. 고종 대에 젊은 내인들이 노랑저고리를 입었으며, 어전 취타수들도 황천익(黃天翼)을 입었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색이 주술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많은데, 그 예는 설날, 출산, 제사 날에 문전에 황토를 뿌려 두는 것, 또는 묘전에 황토를 넣는 것, 왕이 성묘할 때 황토를 도로 변에 뿌리는 것 등을 들 수 있다⁴¹⁾.

③ 그 밖의 동양 문화권 복식에서 노란색의 상징적 의미

불교 문화권에서도 노란색은 종교적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 색이었다. 또한 방기, 무욕, 겸허

35) 김지선. op. cit., p.36.

36) 유희경 (1977).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이대출판부, p.172.

37) 김지선. op. cit., pp.50-51.

38) 김영숙 (1999). 조선조 후기 궁중복식. 서울:명원문화재단, p.229.

39) 이정자 (1997). 천연염색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40) 손경자 (1977). 활옷의 형태와 문양에 관한 연구. 복식 창간호, pp.50-51.

41) 임동권 (1991). 한국민속학논개. 서울:집문당, p.93.

를 상징하였다. 예로부터 불교 경전은 노란 종이 나 비단에 경문을 썼고, 부처가 입멸한 당시 제자가 관 앞에서 소리 높여 통곡을 하니 불관이 열리며 부처가 황금빛 몸을 비추면서 설법했다는 "금관출현"의 전설에서도 황금색이 종교적 빛의 이미지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상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던 간에 그 표면은 금이나 노란 도금을 하여 신성함을 상징하였다⁴²⁾.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의 승복에서도 노란색이 많이 나타나며, 태국의 불상은 부처를 향한 귀의의 상징인 노란색 천을 어깨에 두르고 있고, 인도의 힌두교 사원이나, 스리랑카, 태국의 불교사원에서 노란색의 배색처리를 발견할 수 있다⁴³⁾. 인도에서는 부처의 표피 색을 힌두교에서는 유사한 노란색 또는 황금색으로 하였다. 인도의 힌두신에 관한 종교화인 "크리슈나와 라다"에서도 밝은 노란색은 형체에서 나오는 순수한 빛을 강조하였다⁴⁴⁾. 인도의 브라만교에서도 노란색을 신성한 색으로 여겼으며, 힌두교에서 노란색은 진리를 상징하였다. 시크교에서 노란색은 지성과 신상의 의미를 가지는 색상이었다⁴⁵⁾.

이상에서 살펴보면 인도의 종교 문화권에서 노란색은 신성하고, 진리, 영광, 권위 등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노란색이 사용되었다. 즉 서양복식사에서 노란색이 의복이나 유니폼의 색상으로 보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반면, 불교문화권에서 승려들의 옷은 노란색이나 붉은 오렌지색으로 나타났다.

2) 서양복식에서의 노란색의 상징적인 의미

역사의 흐름에 따라 같은 색이라도 사건에 따라 상징성이 변하거나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지닌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노란색은 꿈과 신앙, 부의 상징

으로 높고 귀함을 상징함은 공통된다. 그러나 서양에서 노란색은 죽음, 배반, 불신 등을 상징하는 등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서양에서의 노란색의 상징적 의미를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상징성

서구의 종교관에서 노란색은 대체로 성스러운 색이었다. 이집트에서는 모든 신들을 색으로 상징화하였는데, 그 중 금색과 노란색은 태양의 신을 상징하였다. 또한 영속성과 불멸을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투타카멘에서 보이는 고대 유물에서 금으로 도금하는 것은 이러한 불멸의 의미 때문이었다. 또한 이집트의 사원과 묘실에서 나타나는 노란색과 황토색은 여성의 피부를 상징하였으며, 노란색의 글씨는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였다⁴⁶⁾.

그 밖의 아프리카지역에서도 황금색은 왕을 상징하였으며, 사회에서의 신의 존재와 영향, 왕의 법 등을 상징하고, 지속적인 생활, 따뜻함 및 통제된 불을 상징하였다.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도 노란색은 태양을 상징하였다. 인디언들도 7색의 곡식을 제사장에게 바치는데, 노란색의 곡식은 공기를 의미하였다⁴⁷⁾. 1세기에 유대인 사학자인 요세우프도 노란색은 공기와 관련된다고 하였으며,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흙, 불, 물, 공기의 4원소에 대해서, 불과 태양은 노란색을 띤다고 하였다⁴⁸⁾. 따라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노란색은 숭상의 색이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혜, 풍요, 공예, 전술의 여신인 아테나 여신을 노란색, 또는 황금색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순수한 노란색으로 염색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순수한 노란색의 의상을 위해서는 값비싼 노란색의 염료와 함께 고가의 비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순수한 노란색의 의상은 사랑의 여신 비너스나 프레야에 표현되어 행복과 권

42) 오해순, 이경희, op. cit., p.868.

43) 이홍규 (1992). 칼라 이미지 사전. 서울:조형사, p.126.

44) Zelanski, M. P. Peter 김미지자 역 (1999). Color - 실제 이론과 응용. 서울:도서출판 예경, p.38.

45) 권영실, 조우현 (1997). 인도 종교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4), pp.677-688.

46) Bruns, op. cit., p.91.

47) 안향신, op. cit., pp.18-19.

48) 이현주, op. cit., p.29.

위의 상징이 되기도 하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신부들은 노란색의 옷감으로 단장하기도 하였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 중세에도 만족스럽고 충족된 사랑을 가리키는 색상으로 노란색이 사용되었다. 모나코의 "성처녀의 대관식"에서 책을 들고 있는 베드로의 의상도 노란색으로 묘사되었다.⁴⁹⁾ 사람에게는 밝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능이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것인데, 노란색은 가장 밝은 색으로, 빛을 상징하므로 이해와 지성, 직관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⁵⁰⁾ 지혜의 군왕을 상징하는 솔로몬의 이름은 sol-om-on이라는 태양을 의미하는 세 개의 언어로 구성된 것이 한 예이다.⁵¹⁾

그리스도교에서도 색상의 상징성은 초기 교회에서는 체계적이지는 않았지만, 중세인들에 의해 색채의 상징성에 대한 이론과 체계가 확립되었다. 비잔틴의 영향 아래, 12세기 말에는 여러 색을 전례에 사용하도록 규정이 확정되면서, 색채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져 백은 순결, 순수와 광명, 기쁨을 의미하였고, 청은 신성, 적색은 신의 사랑, 황금색은 선행, 노란색은 풍부함 등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⁵²⁾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에서 황금색의 돛과 배경은 천국, 초현실적 현상, 태양이 찬연한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성인들의 거룩한 모습은 빛으로 둘러싸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여겼으며, 빛을 상징하는 황금색으로 후광을 표현하였다. 또한 모자이크 전체에 얇은 두께의 금을 입힘으로써, 모자이크 장식에 깊이를 더하였다.⁵³⁾ 이스탄불의 Deesis, 베니스의 St. Marco 등에서 나타나는 모자이크 작품들에서 황금색으로 빛나는 후광을 볼 수 있으며, 라벤나 성당의 모자이크에서는 황금색을 통해 테오도라 여제와 궁정을 신의 영광과 결합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⁵⁴⁾

또한 노란색은 천상의 빛을 상징하기도 하였는데, Gruenwald의 "부활하는 그리스도"나 Caravaggio의 "아기 예수에 대한 경배"에서 노란색으로 천상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Silos 계시록"에서 주목성이 높은 노란색의 천사는 빛의 이미지로 이해될 수 있으며, 페르시아의 "마호메트의 승천"에서는 마호메트가 천국으로 승천하는 영적인 웅장함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황금색을 사용하였다.⁵⁵⁾ Witz의 "유대교 예배당"에서는 유대교를 여성으로 인격화시켜 노란색의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하였는데, 여기서의 인물은 책을 들고 있어 유대인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철학적 지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야수파들에 의해 색채는 색채 자체로서의 표현성을 되찾게 되었는데, 야수주의의 영향은 표현주의로 이어졌다. 표현주의의 중심인물이었던 프란츠 마르크는 색에 상징적인 힘을 고취시키기 위해 색채의 상징성을 확립하였다. 여기서 노랑은 여성적 원리, 부드럽고 쾌활하고, 육감적인 것을 구현한다고 하였다.⁵⁶⁾

노란색에 관한 흥미 있는 심리적인 실험결과가 있다. Read에 따르면, 임신부들은 출산에서 두려움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종 눈에 띄는 노란색을 선호한다. 즉 임신 중 출산이 임박해 올 때 행운을 가져다주는 색으로 노란색을 선호하였다고 한다.⁵⁷⁾

그 밖에도 현대에는 노랑색은 명도가 가장 높고 명시도가 뛰어나므로 각종 안전장치나 공사장, 유치원생의 단체복, 교통 표지판 등이 많이 사용된다. 또한 노란색을 즐겨 쓰는 어린이는 행복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으나, 반면, 노란색을 쓰는

49) Cole, A. 남경태 역 (1997). 르네상스. 서울: 도서출판 디자인하우스, p.187.

50) 하용득. op. cit., pp.205-208.

51) Birren, F. 김진한 역 (1996). 색채의 영향(Color & Human Response). 서울:시공사, pp.12-17.

52) 오춘자 (1974). 그리스도교 전례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2(3·4), pp.751-752.

53) Itten, J. 고을한 역 (1992). 요하네스 잇텐의 색채론. 서울:상미사, p.92.

54) 이현주, op. cit., p.31.

55) Cage, J. (1993). Colour and Culutre, London: Thames & Hudson, p.63.

56) 이일 (1980). 세계의 명화 III. 서울:삼성출판사, p.231.

57) Braem. op. cit., p.92.

58) 최영중, 주인영. op. cit., p.587.

어린이는 애정욕구 불만의 표현이라 하며, 어린이 이 같은 사람이라고도 한다⁵⁸⁾.

이처럼 고대 서양에서 노란색은 태양, 지혜, 지성, 불멸, 행복 등을 상징하였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선행, 풍부함, 천상의 빛을 상징하였다. 성인들의 거룩한 모습을 후광으로 장식하였으며, 현대에 와서도 두려움을 주지 않는 색, 안전을 위한 색, 부드러움 등을 상징하였다.

②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상징성

노란색은 다른 색이 조금만 첨가되어도 곧 순색의 밝은 특성이 상실되어 혼탁한 성질을 가지므로 노란색은 불순물이 혼합된 경우 가치가 없는 색으로 질투, 배신, 의혹, 불신의 이미지를 지니게 된다⁵⁹⁾. 노란색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크게 배반과 불신의 이미지와 부도덕, 죽음의 이미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처음 노란색은 종교적으로는 성스러운 색이었는데,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일부 민족이나 국가에 있어서는 배신의 색, 불신의 색, 하등의 색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이슬람교와 유대교 사이에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였다. 그 중 노란색은 유대교를 상징하였는데, 독일의 나치시대에 유대인에게 노란색의 별을 달고 다니게 한 것도 노란색이 유대인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⁶⁰⁾.

중세 유럽에서도 노란색 반지와 노란색 모자는 유대인을 상징하였다. 일부 서양에서는 노란색을 유대의 복식이라는 이유로 배신자의 색, 하등의 색이라는 개념이 동조되면서 노란색이 경멸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리스도교에서는 노란색의 사용을 피하고 있는데, 이는 노란색이 배반자 유대의 의복을 표현한 색이기 때문인데, 배반의 상징인 유다는 대개 노란색으로 묘사되며, 성직자에 있어서도 노란색의 의상은 참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Greco의 "성 피터의 참회"에서 노란색의 의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⁶¹⁾. 또한 로마에서는 유다가 예수를 배신할 때 노란색의 옷을 입었다고 하며, 노예에게 노란색 옷을 입혔다. 러시아에서는 매음의 표시에도 노란색을 사용하였고, 간교한 목소리를 옐로우 보이스라고 하였다⁶²⁾.

고대 막시밀리안 형법에는 이단자를 처형할 때 노란 목도리를 두르게 하였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빚을 갚지 않은 이에게 노란 원반을 목에 걸고 다니게 하였다. 10세기에 프랑스에서는 반역자나 범죄자들의 집 대문을 노란색으로 칠하였으며, 프랑스 어휘에 남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랑게 뒤집어썼다는 말은 심하게 배반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⁶³⁾. 16세기 스페인의 종교재판소에서 이단과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이를 표시하는 노란색 옷을 입고 산채로 화형하였다. 이처럼 서양에서는 노란색이 배반과 불신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노란색이 부도덕의 이미지로 사용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중세의 매춘부는 창녀의 표식으로 노란 허리띠 또는 머리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했다. 서양회화에서 꽃은 곧 시들어버리므로, 특히 노란색은 서양회화에서 "허무"를 연상시키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서양회화에서 부도덕한 인물을 묘사할 때 그들은 노란색의 의복을 입고 있다. 예를 들어, Titian의 "타르킨과 루크레티아"에서 로마의 왕 타르킨이 루크레티아를 겁탈하는 장면에서 노란색의 의상을 걸치고 있었고, "다나에"에서는 다나에를 겁탈하는 주피터를 "황금의 소나기"로 표현하였다⁶⁴⁾. 13세기 초부터 16세기까지 유럽에서 노란색은 사회의 다양한 특징의 표식으로 사용되었는데, 창녀, 유대인 뿐만 아니라 노란색은 금사, 매신저나 하인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이용되었다. 부도덕한 부정적 이미지의 노란색은 미혼모를 묘사하기도 하는데,

59) Itten, op. cit., p.168.

60) 신영선, op. cit., p.94.

61) 이현주, op. cit., p.32.

62) 최영중, 주인영, op. cit., p.591.

63) Graves, 배만실 역 (1998). 디자인과 색채 (The Art of Color and Design).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268.

64) 조용진 (1997). 서양화 읽는법. 서울:(주)사계절 출판사, pp.81-82.

Fouquet의 "Virgin and Child"의 인물은 노란색의 긴 솔을 걸치고 있다. 어린 소녀나 창녀들 또한 사회에서 부도덕하다고 여겨질 때 노란색 옷을 입혀 눈에 띄게 하였다. 예를 들어 17세기나 18세기 프랑크족들에게 있어서 수식어로 "노랑"이란 의미는 특히 추하다는 느낌을 주었으며, "당신은 노란색 자루 같다"는 말은 공식으로 안 좋은 의미를 지닌다⁶⁵⁾. 또한 노란색은 배우자를 속인자의 색상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시리아에서는 노란색은 거지의 색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의복의 색상으로서 노랑의 사용은 부정적인 연상력을 지녔다.

노란색은 죽음, 질병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했다. 나뭇잎과 풀의 변색으로 나타내는 빛바랜 노란색은 생명의 색인 "녹색의 죽음"을 의미하여 병과 죽음을 상징한다⁶⁶⁾. 기원전 2000년경 이집트의 미라는 노란색의 붕대를 감고 있으며, 그 당시의 상복은 노란색이었다. 아프리카에서 노란색은 아픈 피부색이나 상처 입은 동물 등을 나타내었다. 어린선이 나타난 아프리카 목각에서 금색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주술적 의미에서 병이 낫도록 비는 마음이었거나 혹은 자연료인 홍화의 황색잎으로 불들인 소독성을 이용하여 약물효과를 의미할 수도 있다⁶⁷⁾. 법정 앞에서 머리에 노란색 붕투를 쓰고 있는 경우는 사형을 의미했으며, 스페인에서 사형집행인의 옷의 색상 또한 노란색이었다⁶⁸⁾.

노란색 중 증성화된 노란색과 녹황색류는 질병, 건전치 못한 것, 천한 것, 비겁, 질투, 시기, 사기, 배반 등을 연상시켜 병원 꼭대기에 황색기를 꽂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노란색은 빛의 이미지와 함께 불신, 배반, 죽음의 이미지 및 경고의

이미지 등 다중적이고 광범위한 이미지를 지니는데, 이런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예를 들어 독일), 노란색은 의사소통을 의미하여 우체통에 노란색을 쓰는 경우가 있으며,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사자인 머큐리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였다⁶⁹⁾.

노란색은 또한 질투와 증오, 경멸의 상징으로도 사용된다. 악마와 마술사는 노란색 옷을 입고 있으며, 현대의 노동조합 중 사업주의 이익에 기초를 두고 설립된 조합을 경멸하는 의미로 노란색으로 표시하였다⁷⁰⁾.

현대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란색을 좋아하는 색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각 연령층의 남, 녀 1888명의 경우 5%정도만이 노란색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다⁷¹⁾.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노란색은 여전히 의복의 색상으로서 경멸의 표식으로, 그리고 여성적인 의상인 경우에는 치욕의 표식으로, 부정적으로 연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성적인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강한 거부감도 노란색으로 표현되었다⁷²⁾.

이처럼 서양에서는 노란색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과거부터 배반과, 불신, 부도덕, 죽음, 질투, 시기심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요약과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술사에 등장하는 색 중 가장 오래된 색인 노란색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고찰해 보며, 복식에 표현된 노란색이 다른

65) Brueckner, W. (1983). Farbe als Zeichen - Kulturtraditionen im Alltag. In: Farbe - Material, Zeichen, Symbol, Berlin: Colloquium Verlag, p.47.

66) 이현주, op. cit., p.33.

67) 신영선 (1993), 색과 문양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 문화인류학의 문헌을 중심으로 -, 국민대 조형논총, p. 351.

68) Koenig, O. (1983). Farbe als Symbol weltlicher und kirchlicher Herrschaft. In: Farbe - Material, Zeichen, Symbol, (1983). Berlin:Colloquium Verlag., pp.56-57.

69) Bruns, op. cit., p.111.

70) Koenig, op. cit., p.87.

71) Hefler, E. (1989). Wie Farben wirken, Reinbeck bei Hamburg, p.48.

72) Braem, op. cit., p.93.

세계관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양과 동양에서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역사적 발전을 이루어 왔는지 문헌을 통해 비교, 고찰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노란색은 삼원색 중의 한 색이며 순색 중에서 명도가 제일 높은 색으로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는 양면성이 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노랑은 빛과 생명, 에너지의 원천을 상징하며, 영광의 이미지, 환희, 명쾌함, 현명함, 희망, 광명, 발전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노란색은 경박, 냉담, 질투, 미숙함, 배신, 범죄 등의 색으로, 우스꽝스러운, 신경질적임, 쇠망, 늙음, 죽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동양에서는 노란색은 음양오행설에 의한 오방색의 하나로 중앙에 위치하여 땅, 중앙 또는 천자를 상징하며, 존귀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복식사에 있어서도 황제의 색으로 지정되어 권위를 상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에는 다른 색에 비해 하급의 색이었던 노란색은 고려시대 중반 이후 조선시대 말까지 이등체강의 원칙에 따라 금지되었다. 그러나 중국과는 다른 색상을 가진 노란색이 반가의 저고리로 사용되었으며, 고종 황제 이후에는 다시 노란색을 황제의 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였다. 중국, 인도 등 불교문화권에서 노란색은 종교적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다. 한편 노란색은 동양에서 야인, 도사, 덧없음, 미숙, 유치 등 부정적 의미를 상징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양에서의 노란색은 긍정적인 의미가 보다 강하였으며,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존귀한 색으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한편 서양에서도 노란색은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을, 아프리카에서는 왕을,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혜, 풍요, 순결, 행복 등을 상징하였다. 중세에도 만족스럽고 충족된 사랑을 상징하였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교의 사상이 지배하였으므로, 선행, 풍부함, 천상의 빛을 상징하기도 했다. 현대에 와서도 두려움을 주지 않는 색, 안전함을 위한 경계색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다른 색이 조금만 첨가되어도 곧 순색의 밝은 특성이 상실

되는 노란색은 서양에서 유태인, 매춘부, 배신자 등을 상징하여 배반과 불신의 이미지, 부도덕의 이미지, 죽음, 질병의 이미지, 질투와 증오, 경멸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가졌다. 서양의 많은 그림에서 간음하는 자, 부도덕한 자의 상징으로, 그 사람들에게 노란색을 입혔으며, 사형집행인, 사형수, 악마등도 노란색으로 표현되었다. 대체로 서양에서는 노란색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복식사에 나타난 노란색은 동양과 서양에서 모두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대체로 동양에서는 긍정적인 상징성을 가진 반면 서양에서는 보다 많은 부정적인 의미를 상징한다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서양복식에서도 나타나곤 한다. 노란색으로부터 얻어지는 연상은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설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서양에서는 기독교적인 사상에 의해 각각 공통개념이 일반화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생기고 그에 따른 노란색의 상징성이 되어, 오늘날까지 복식에 그 상징성을 나타내며,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 권영실, 조우현 (1997). 인도 종교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4), pp.677-688.
- 금기숙 (1994). 복식에 표현된 한국 고유색에 대한 연구. 홍익논총 26, pp.253-275.
- 김내현 (1983).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직물의 상징문양과 색채에 관한 고찰 -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7.
- 김영숙 (1999). 조선조 후기 궁중복식. 서울:명원문화재단, p.229.
- 김인수 (1985). 색채가 의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5.
- 김지선 (2001). 전통복식에 나타난 황색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8, 26-28, 36, 50-51, 72.

- 나수임 (1993). 한국 혼례복색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 조선시대 혼례복을 중심으로- 상명여대 디자인 연구, pp.61-79.
- 손경자 (1977). 활옷의 형태와 문양에 관한 연구. 복식 창간호, pp.50-51.
- 신영선 (1998). 복식의 정신문화. 서울:교문사, p.93, 94.
- 신영선 (1993). 색과 문양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 문화인류학의 문헌을 중심으로-. 국민대조형논총, pp.351-373.
- 신정숙, 이상은, 정혜정 (2000). 전통 염색복에 표현된 동서양 색채의미.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1), pp.75-94.
- 안향신 (1993). 현대 복식에 표현된 색채상징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색채 경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18-19.
- 오세은 (1989). 삼국시대 문헌상에 나타난 색채.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 오해순, 이경희 (2002). 현대패션에 나타난 노랑의 조형성과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6(6), pp.866-868.
- 오춘자 (1974). 그리스도교 전례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2(3·4), pp.751-752.
- 원미량 (1976). 청색을 통해 본 중국 개념색의 문제. 공간 No.102. 서울:공간사, p.91.
- 유희경 (1977).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이대출판부, p.172.
-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 p.4.
- 이경손 (1999). 기독교 상징에 관한 연구 -문양 및 색채를 중심으로- 배화논총 18, pp.203-235.
- 이규태 (1991). 우리의 옷 이야기. 서울:기린, pp.97-107.
- 이선재 (1992). 조선시대 복식에 반영된 음양오행사상에 관한 연구 -여자, 남자 복식의 색채와 문양을 중심으로-. 숙명여대아세아여성연구 31, pp.179-202.
- 이영주 (1999). 한국고대염색문화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8.
- 이일 (1980). 세계의 명화 III. 서울:삼성출판사, p.231.
- 이정자 (1997). 천연염색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 이현주 (2000). 노란색 이미지에 의한 복식디자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25, 29-33.
- 이흥규 (1992). 칼라 이미지 사전. 서울:조형사, p.126.
- 임동권 (1991). 한국민속학개론. 서울:집문당, p.93.
- 임영방 (1986). 생활미술. 서울: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pp.178-183.
- 정명자 (1986). 우리나라 용문양에 관한 연구. 한양여자전문대학교 논문집 9, pp.263-290.
- 정소연 (1995). 동양의 색채개념에 의한 상징적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10.
- 조용진 (1997). 서양화 읽는법. 서울:(주)사계절 출판사, pp.81-82.
- 조풍삼 (1995). 색채와 마케팅. 서울:금강기획, pp.95-96.
- 최영종, 주인영 (1998). 색의 상징성과 Communication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논문집, pp.579-591.
- 파버비렌, 김화중 역 (1985). 색채심리. 서울:동국, pp.204-205.
- 패션디자인 실무 (2002). 서울:라사라패션정보, p.154.
- 하용득 (1996). 한국전통과 색채심리. 서울:명지출판사, p.146, 181, 205-208.
- 중국 역대 복식 (1991). 대북:학림출판사, p.5.
- Birren, F. 김진한 역 (1996). 색채의 영향(Color & Human Response) 서울:시공사, pp.12-17, 89.
- Boucher, F. (1996).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London: Thames & Hudson, p.205.
- Braem, H. (1987). Die Macht der Farben, Muenchen: Wirtschaftsverlag Langen-Mueller, pp.91-93.
- Brueckner, W. (1983). Farbe als Zeichen - Kulturtraditionen im Alltag, In: Farbe - Material, Zeichen, Symbol, Berlin: Colloquium Verlag, p.47.
- Bruns, M. 조정옥 역 (1999). 색의 수수께끼. 서울:세종연구원, pp.89-91, 111.
- Cage, J. (1993). Colour and Culutre, London: Thames & Hudson, p.63.
- Cole, A. 남경태 역 (1997). 르네상스. 서울:도서출판 디자인하우스, p.187.
- Eberhard, W. (1983). Lekikon chinesischer Symbole - Geheime Sinnbilder in Kunst und Literatur, Leben und Denken der Chibesen, Koeln:Eugen Diederichs Verlag, p.104.
- Favre, J.-P & November, A. (1979). Color and Communication. Zurich, p.74.
- Fore, W. F. (1968). Communication for churchmen. Nashville & New York:Abingdon Press, p.95.
- Graves, 배만실 역 (1998). 디자인과 색채 (The Art of Color and Design).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

판부, p.268.

- Grieshammer, R. (1983). Die Farbe in der Fruehgeschichte und in den fruehen Kulturen der Menschheit, In: Farbe - Material, Zeichen, Symbol, Berlin: Colloquium Verlag, p.24
- Gross, R. (1981). Warum die Liebe rot ist, Farbsymbolik im Wandel der Jahrtausende, Duesseldorf, Wien: Econ Verlag, p.183.
- Harvey, Van A. (1964). A Handbook of Theological Terms, New York:Macmillan company, p.232.
- Heller, E. (1989). Wie Farben wirken. Reinbeck bei Hamburg, p.48.
- Hope, A. & Walch, M. (1990). The Color Compendium, New York:Van Nostrand Reinhold, p.282.
- Itten, J. 고을한 역 (1992). 요하네스 잇텐의 색채론. 서울:상미사, p.92, 161, 168.
- Koenig, O. (1983). Farbe als Symbol weltlicher und kirchlicher Herrschaft. In: Farbe - Material, Zeichen, Symbol, Berlin: Colloquium Verlag, pp.56-57, 87.
- Loscheck, I. (1999). Reclams Mode- & Kostuem Lekikon, Struttgart:Philipp Reclam jun, p.178.
- Seidenberg, A. (1996). Die Farbe der Bekleidung als Kommunikationsmedium. Wuppertal Universitaet, Dokorat Dissertation, p.98.
- Zelanski, P. & Peter, M. P. 김미지자 역 (1999). Color - 실제 이론과 응용. 서울:도서출판 예경, p.38.